

한숨 돌린 文, 당내 단합 행보 재개

■ 김상곤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새정치 갈등 봉합될까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3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선하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는 등 당내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를 재개하면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 만나 대선주자 ‘희망스크럼’ 구성

비노 인사들 봉하마을서 ‘물세례’…양금 여전

그러나 누구라도 물러설 수 없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당 저변에 깔려있는 진노-비노간 계파갈등이 워낙 깊어 혁신 위 활동을 통해 내용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 카드’는 끝내 무산됐지만,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비노무현)진영이 추천한 김 전 교육감 영입을 성사시킴으로써 벼랑 끝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 전 교육감은 비노계가 추천한 인사이긴 하지만, 문 대표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

오며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문 대표는 지난 24일 박 시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당내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면서 당내 대선주자 모임인 ‘희망스크럼’ 구성의 신호탄을 쏘았다.

‘희망스크럼’이란 문 대표가 지난 2·8 전당대회 당시 “박원순의 생활정치, 안철수의 새정치, 안희정의 분권정치, 김부겸의 전국정당을 위한 헌신, 모두가 함께하는 옹광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협의체로,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그럼에도, 당내 계파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목표 달성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비노 유력 인사들이 물세례와 야유 등 봉변을 당하면서 진노-비노 간 골 깊은 갈등상이 또다시 노출됐다.

당시 김한길 전 대표가 참배하고 나오자 일부 참석자들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너만 살겠다는 거냐”, “한길로 가야지” 등 고성을 지르며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도 참배를 마친 후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당을 분열시키지 마라”, “원조 진노가 잘해야 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도 한 참석자가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도 야유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일부 참석자가 뿌린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문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방을 겨냥한 ‘광풍 설전’을 계속 이어가는 점도 혁신·쇄신 국면 전

환을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제발 분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진노-비노 프레임으로 재미 보려는 사람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반격했다.

이에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파 패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의 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라며 “패권정치의 청산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문 대표를 압박했다.

문 대표의 23일 페이스북 글을 놓고 한 비노 중진들은 “문 대표가 분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인 문 대표가 노무현 이름을 팔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야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 갈등이 위협수위를 넘나들면서 혁신위 구성이 근본적 처방이냐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낙마시킨 진노의 배타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당 내용은 ‘협정산중’ 고비를 넘어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예결위원장 김재경·정보위원장 주호영 내정

여당 뒤편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여 경선이 예상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3선의 새누리당 김재경(54·경남 진주) 의원이, 정보위원회장에 3선의 주호영(55·대구 수성)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당초 예결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해 26일 당내 경선을 앞



김재경 의원



주호영 의원

두고 있었으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의원을 만나 협의한 결과 예결위원장은 김 의원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주 의원은 대선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와 김,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윤근, 다중 대표소송·전자투표제 입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보



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 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권익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노건호, 면전 직격탄

노무현 전대통령 추도식서 “제발 나라 생각하라” 비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면전에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건호씨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 인사 말을 통해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열렸다는데 감격을 금할 수 없다”며 답답하게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다가 “특별히 감사 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다”면서 김 대표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격양된 어조로 김 전 대표를 향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올려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속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품모를 빙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사과나 반성, 그런 것은 필요 없다”면서 “제발 나라 생각을 좀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김 대표를 포함한 여권 관계자들은 물론 야당 인사들도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성도 터져 나왔다.

이번 연설문은 주위 인사들과의 상의 없이 건호씨가 직접 준비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지난 대선 때 NLI논란에 이어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까지 참여정부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거세지자 개인적 울분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진노(진노무현)세력 집결의 계기로 삼고자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보수정치권에서는 건호씨의 ‘작심 비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건호씨는 2011년 4·27 재·보선에서 경남 김해를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호씨는 지난 2002년 7월 LG전자에 공채로 입사한 뒤 베이징법인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회사를 휴직계를 냈다. 현재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굳은 표정의 노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앞을 지나 추도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그냥 웃지요

5·18기념식·봉하마을 참배 잇단 봉변 불구 ‘광폭행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여당과 거리를 뒀던 호남 등 야권 민심에 다가가는 행보가 눈에 띈다.

김 대표는 23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로부터 면전에서 강한 비난을 받고, 일부 추모객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물세례’를 받는 봉변을 당했지만 행장장을 지켰다.

김 대표는 지난 17~18일엔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 정부에서 제창을 불허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여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5·18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받고 자리를 떠나긴 했으나, 5·18 유족 대표들이 서울까지 찾아와 사과하자 “물세례가 시원했다”고 웃어넘겼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광폭 행보에 대해 진노와 비노로 갈려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보여준 일부 진노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 당내 핵심 관계자는 “상가에는 원수도 올 수 있다. 이번 일을 보고 국민은 어떠한 판단을 했겠느냐”며 “진노와 비노의 한계를 넘어서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5월 셋째 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2%로 3주째 1위를 지켰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19.5%, 박원순 서울시장 14.6%,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6.9%,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문 대표의 경우 지난 4월 셋째주에 지지도 27.9%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2.0%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세미나

- 신 개발지 뜨는 지역 집중분석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보면 심자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황기 소액투자자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개별지에 성공 투자법
- 토지의 가치 판단법
- 부동산투자 맥을 짚어라
- 참제기에 대처하는 부동산 시장
-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통한 미래분석
- 서남해안의 대이벤트 집중 분석
- 남부 도청 2차 옹호지구 미래분석

일정과 장소

- 2015. 05. 27(수), 1부 오후 2시~4시, 2부 오후 7시~9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93번지 J타워 3층 (첨단 2차구 북광주농협과 광주은행 사이)
- 예약 문의 : 062)576-7955

주 관 코아토지 채테크상담소

※ 품과 열정으로 가족처럼 일하실 프리랜서 여직원 〇〇명을 모집합니다.

- 코아토지 채테크상담소 강사
- 광우원 교육원 외래교수
- 전남지법경찰청 외래교수
- 코아토지 채테크상담소 대표
- (주)해남농장 대표이사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I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